

같이 보기

: 꿈꾸는 오아시스 다방

오아시스 다방은 부산의 변화가인 광복동이 끝나서 서쪽 네거리에서 길 건너 부평동 깡통시장 못미친 곳에 있었다. 1960년대 광복동과 남포동에는 차고 넘치는 게 다방이었다. 오아시스는 단순히 다방이라기보다는 음악실에 더 가까웠다. 클래식 음악만 틀어주는 음악실 겸 다방이었다. 그곳에는 많은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모여 들었는데 학생들은 의과대학생들이 단연 많았다.

부산의대가 있던 아미동과는 버스 한 정거장 거리라 수업이 끝나면 곧장 그곳으로 몰려갔다. 대학병원 옆 당구장 일층에도 다방이 있었지만 그 시절 초장동에 거주하는 늙은이들이 마담 손이라도 잡아보려는 속셈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 학생들이 가기를 꺼려했다.

내가 오아시스 다방에 처음 간 때는 해부학 실습이 한창이었던 본과 1학년 가을이었다. 하루 종일 실습

실에 앉아 있느라 포르말린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옆구리에 끼고 친구 몇 명과 어울려 있었는데 그때 처음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들었다. 우리는 학업에 지치고 시험에 쫓아 있다가 천재가 만든 황홀한 음악에 깊이 심취했었다. 그 후 오아시스 다방 출입은 일상이 되었다.

어떤 휴일 날에는 아침 일찍 들어가 점심도 굶고 하루 종일 음악 속에 파묻혀 있기도 했다. 밖으로 나오면 변화가의 불빛들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걸 보며 길 건너 어둠 속의 부평동 길을 걸어오기도 했다. 그곳은 우리들의 꿈을 부풀게 하여 풍선처럼 만들어주는 공작소였다.

1960년대를 가난하고 남루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는 차 마실 돈을 아껴 공짜로 주는 엽차를 마셨는데 그곳에서 차를 나르던 레지, 레지라고 부르기에 나이 어린 예쁜 소녀가 가난한 의대생들을

꿈꾸는 오아시스 — 다방 *Oasis*



전용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센터
보건관리팀 원장
소설가



생각해 엽차만 마시는 우리를 타박하지 않았고, 그녀도 피곤하면 단골 학생들 곁에 앉아 휴식을 취하곤 했다. 음악을 듣다 지루해지면 아껴둔 찻값을 모아 남포동 입구에 있는 마산집으로 몰려가 양은주전자 가득 채워주던 막걸리를 마셨다.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친구들과 오아시스 다방을 들렀는데 장전동 의예과 시절에 안면이 있었던 상대 여학생 3명을 만나 즉석 미팅을 하기도 했다. 우리와 학번이 같았던 상대 여학생은 학교 내 몇 되지 않는 여학생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미인이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호하나 그녀들이 우리들로부터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코를 감싸던 기억은 생생하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영문과나 가정과를 가지 않고 어떻게 상대를 갈 생각을 했는지,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물어봤던 것 같았는데 무슨 대답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을 했으나 아마 의대생들의 많은 시험 준비와 바쁜 일상에 묻혀 그 일은 술김에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는지 그 이후 그녀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오아시스 다방의 특징은 클래식 음악실답게 유명한 작곡가의 이름을 새겨둔 의자 커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웬만한 음악가의 이름은 그곳에서 익혔다. 아쉬운 것은 끝없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으나 누구 한 사람 음악에 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때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의 매력이나 내재적 아름다움을 알게 됐다면 훨씬 더 고전 음악과 가까워져 나이 들어서도 친숙했을 것이다.

그 시절 다방에서 학생들 주최로 시화전이나 문학 혹은 음악의 밤들이 가끔 열리곤 했는데 다방에서 딱 한 번 내가 속한 클럽 주최로 음악회를 연 적이

있었다. 내가 책임을 맡고 있어 교수님들과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모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한 여학생에게 등기우편으로 초청장을 보냈다. 그녀는 그해 미스코리아 선발전에서 부산을 대표했던 k대생이었다. 내 직감으로 초청장이 그녀에게 제대로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나오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터무니없는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다. 다방에서 음악의 밤이 열리던 날, 나는 곡을 선별하느라 디제이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음악회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참석한 걸 알았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구석자리였다. 생각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결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앉은 좌석 앞뒤 옆의 자리가 사람들로 꽉 차 도무지 말을 나눠 볼 상황이 아니었다. 음악회가 거의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설 무렵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초청장은 내가 보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그옥이 나를 바라보더니

“음악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바깥쪽으로 몸을 돌리며 한발자국 움직였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음악회의 마무리와 우리들끼리 뒤풀이가 남아 있어 같이 나갈 형편이 못 되었다. 나는 간략하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볍게 악수를 나눴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

의대 졸업 후 미국에 간 친구들이 부산에 오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오아시스 다방이라고 하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지만 1960년대 그 시절 20대 의학도의 푸르고 여린 감정을 무던히도 휘감았던 모양이다. ☺